

제9대 영천시의회 원구성 마무리... 의장 하기태, 부의장 우애자

산업건설위원장 이갑균
총무위원장 김상호
운영위원장 박주학 의원



의장 하기태

부의장 우애자



산업건설위원장 이갑균

총무위원장 김상호

운영위원장 박주학

영천시의회(의장 하기태) 제9대 원구성이 지난 4일 최종 마무리되면서 본격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영천시의회는 지난 1일 제223회 임시회 개회 첫날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고 지난 4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장과 각 상임위원들을 선임했다. 또 지난 7일 열리는 첫 간담회에서 집행부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첫 보고도 받았다.

첫날 의장과 부의장 선거에서 의회는 하기태(찬성 11, 기권1) 의원과

우애자(찬성 11, 무효 1) 의원을 각각 의장과 부의장으로 선출했다. 개원 전 초·재선 의원들간 의장단

선출을 두고 다수당(10명)인 국민의힘 내에서도 논란이 불거져 우려가 높았지만 이날 하기태 의장과 우애자 부의장 선출에는 1명(기권)을 제외한 전원이 찬성해 의원간 갈등은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았다.

◇ 하기태 의장
"시민과 소통, 불합리한 관행 개선, 공부(연구)하는 의회상 구현"
영천시에는 "시책 추진 전 사전 협의, 정보제공 등 동반자적 협력 요구"

하기태 의장은 이날 "제9대 영천시의회는 앞으로 시민들께 희망과 기쁨의 메시지를 전하는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린다"며 4가지 의회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의회의 권한은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것,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의 의회 만들어야 ▲둘째 지방자치 핵심은 조례 재·개정과 예산안 심사는 집행부에 지역발전의 비전과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불합리한 관행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 ▲셋째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각종 정책질 의나 연구위원회 개최 등 연구하는 의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전문 지식을 넓히고 의정활동의 역량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고 공부하는 의회상 구현 ▲넷째 "9대 의회 개원을 계기로 신뢰 받는 의회 분위기 조성, 시민들에게는 희망과 용기를 주는 진정한 지방자치 의회를 만들자!"는 4

가지 방향이다.
하 의장은 또 "진정한 지방자치 분권은 실질적인 행정을 실행하는 집행기관과 이를 견제하고 감시감독하는 지방 의회의 기능에서 시작된다"며 제9대 의회는 영천의 미래와 시민의 행복을 위해 집행기관과 협력할 것은 적극 협력하고 시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견제와 대안제시를 통해 시책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집행기관에는 시책을 시행하기 전 의견 수렴을 위한 사전 협의와 정보제공 등 상호 동반자적인 자세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장지수 기자
<관련기사 7면>

제보=본지 독자 K씨(54, 야사동)
"빨리 조치해 주십시오!"
영천시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변 반사경을 설치하고 있다. 그런데 반사경이 파손되거나 숲에 가

려 아예 제구실을 하지 못하는 곳이 많다. 하절기는 풀이나 나무 성장 속도가 빨라 가려지는 곳도 많지만 행정의 변명은 될 수 없다. 이곳은 영천시 대전동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주 출입구로 국도 35호선에 접한 경사진 도로로 차량통행이 빈번한 곳

이다. "이대로 방치하면 사고 우려가 높아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는 본지 독자의 제보다. K씨는 "영천시는 제보를 기다리는 보여주기식 형식적 점검을 하지 말고 시민의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진정성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영천시부시장에 설동수 전 의성부군수 부임

[인사] 경상북도 2022.7.15.자 승진 전보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는 지난 11일 인사심사위원회를 열고 총 13명의 승진인사를 단행하면서 ▲ 7.15.자로 설동수 전 의성군부군수를 3급으로 승진시켜 영천시부시장으로 발령했다.
신임 설동수 영천시부시장은 1989년 청도군에서 첫 공직을 시작해 상주시농업정책과장, 경북도 잠사군총사업장을 거쳐 道 농식품유통과장을 역임하고, 지난해 1월 4일 의성군부군수로 부임한 후 이번에 승진해 영천시부시장으로 부임한다.

농업분야에 전문성이 높고 기획력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행정가로 알려진 설 신임 영천시부시장은 부자농촌을 꿈꾸는 영천시의 농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은 경상북도 7.15.자 승진 전보 인사 총 13명
◆ 3급 승진 및 전보 : 2명 ▷영천부시장 설동수(7. 15.字) ▷영주부시

장 송호준(7. 15.字)
◆ 행정5급 → 4급 : 6명(직급승진 5, 직무대리1) ▷과학기술정책과 김미경 ▷환경정책과 윤병기 ▷감사관실 윤성용 ▷자치경찰정책과 장미정 ▷아이세상지원과 한영희 ▷동해안정책과 신재일(직무대리)
◆ 공업(전기)5급 → 4급 : 1명 ▷에너지산업과장 직무대리 류시갑
◆ 공업(화공)5급 → 4급 : 1명 ▷맑은물정책과 정광호
◆ 시설(지적)5급 → 4급 : 1명 ▷토지정보과 서보영
◆ 농업연구관 직위승진 : 1명(과장급) ▷농업기술원 유기농업연구소장 박석희
◆ 환경연구관 직위승진 : 1명(부장급)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조사과장 이화성



영천췌, 도로교통법 시행...보행자 보호의무

교통사고예방 홍보 강화
횡단보도 무조건 일시정지



인트존을 설치하는 등 운전자가 보행자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홍보와 시설물을 강화했다.
민문기 서장은 "앞으로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는 경우 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때에도 살펴야 하며,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주변에는 신호기 설치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천경찰서(서장 민문기)는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7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등 이날 보행자 교통사고예방 활동에 나섰다.
고령 보행자가 많이 통행하는 장소와 어린이 보호구역 등 교통안전 취약지점을 선정해 형광 반사지 포

김효정 기자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확대!

전방 차량신호 적색인 경우	전방 차량신호 녹색인 경우												
<p>횡단보도 빨강불일 경우</p> 	<p>횡단보도 초록불일 경우</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background-color: #d3d3d3;">현행</td> <td>보행자 있을 경우</td> <td>주행 가능</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d3d3d3;"></td> <td>보행자 없고 대기자 있을 경우</td> <td>주행 가능</td> </tr> </table>	현행	보행자 있을 경우	주행 가능		보행자 없고 대기자 있을 경우	주행 가능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background-color: #d3d3d3;">현행</td> <td>보행자 있을 경우</td> <td>주행 금지</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d3d3d3;"></td> <td>보행자 없고 대기자 서있는 경우</td> <td>주행 가능</td> </tr> </table>	현행	보행자 있을 경우	주행 금지		보행자 없고 대기자 서있는 경우	주행 가능
현행	보행자 있을 경우	주행 가능											
	보행자 없고 대기자 있을 경우	주행 가능											
현행	보행자 있을 경우	주행 금지											
	보행자 없고 대기자 서있는 경우	주행 가능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background-color: #d3d3d3;">개정</td> <td>보행자 없을 경우</td> <td>주행 가능</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d3d3d3;"></td> <td>대기자 있을 경우</td> <td>일시정지</td> </tr> </table>	개정	보행자 없을 경우	주행 가능		대기자 있을 경우	일시정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background-color: #d3d3d3;">개정</td> <td>보행자 있을 경우</td> <td>주행 금지</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d3d3d3;"></td> <td>보행자 없고 대기자 서있는 경우</td> <td>주행 금지</td> </tr> </table>	개정	보행자 있을 경우	주행 금지		보행자 없고 대기자 서있는 경우	주행 금지
개정	보행자 없을 경우	주행 가능											
	대기자 있을 경우	일시정지											
개정	보행자 있을 경우	주행 금지											
	보행자 없고 대기자 서있는 경우	주행 금지											

자료=경찰청

횡단보도 위에 보행자가 완전히 건너지 않은 상태에서 우회전하면 위반대상

영천시 망정동 Y경로당 L회장·A부회장 보조금 '부정사용(착복)' 의혹

공무원 쉬쉬, 덮기 급급... L회장·A부회장 가족... 기관 간부와 영천시청 퇴직 국장 "영천시 의도적 금액 축소·은폐, 면죄부 주려는 것 아니냐?" L회장·A부회장, 보조금 가족 통장으로 이체, 현금 인출 영수증 없어

경북 영천시 망정동 Y경로당 일부 임원의 보조금 '부당사용'과 '착복(횡령)'의혹이 불거졌다. 그런데 영천시가 이같은 사실을 덮거나 축소하려는 의혹까지 겹쳐지면서 민원인들의 불만이 높다.

특히 보조금의 '부당사용'과 '착복(횡령)'의혹을 받고 있는 경로당 L회장과 A부회장의 가족이 각각 공공기관 간부와 전직 영천시청 국장(퇴직)으로 알려지면서 "영천시가 의도적으로 금액을 축소·은폐해 면죄부를 주려는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때문에 "경찰에 수사의뢰하여 보조금의 투명한 사용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4일 경로당 복수의 관계자 등에 따르면 "2018년 1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지출과 수입을 분석한 결과 전체 수입 31,114,154원 중 지출은 23,584,026원으로 일부 영수증이 없는 것과 회원들의 증언으로 인한 지출을 인정하고도 7,530,128원이 부족했다"면서 이는 "전기료 등 한해 운영비 908,226원×3년(2,724,678원)을 공제하고도 총 4,805,450원을 환수받아야 한다"고 제보해 왔다.

또 이들은 "영수증 없는 부분을 감안한 정산내역이 이처럼 엄청나게 차액이 발생하는데 실제 환수해야 할 금액은 1천만원이 넘을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히고 "영천시가 정확한 진상을 파악해 줄 것"을 요청했다.

◆취재로 확인해보니...

본지가 지난달 14일부터 약 한달간 이같은 정산 내역과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을 입수해 확인한 결과 같은 기간 동안 불가능한 현금 인출만 15회에 4,800,0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체크카드 사용도 의문 투성이다. 1회에 80만원의 건어물을 구매했는가 하면 또 보조금을 A부회장 개인통장으로 이체해 사용했다. 보조금 통장 체크카드 사용실태를 살펴보니 같은 날 동일 시각 동일장소에서 다섯 번에 걸쳐 한 번에 2~3회씩 중복 사용해 모두 14건에 818,109원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제보자들은 "회원 두 서너명이 어울려 같은 장소에서 유사금액으로 각각의 개인 식료품 등을 구매해 나누어 가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15일에는 한번에 현금 6,952,279원을 인출해 이 중 250만원은 소고기를 구입했다. 나머지 440여만원 중 220만원은 A부회장의 아들 J모씨 통장으로 이체됐으며, 150만원은 11월 26일과 12월 8일에 각각 50만원과 150만원 두차례 현금으로 인출돼 용처가 불분명한 상태다.

특히 보조금과 회원 일반 수입금을 혼용해 사용하면서 보조금 통장과 개인통장을 이용해 정산을 할 수 없게 만들었는가 하면 또 영수증 처리와 장부 정리조차 하지 않아 영천시의

경로당 보조금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영천시의 이상한 보조금 정산법

더군다나 영천시가 2021년 사용 보조금 정산을 하면서도 수입 총액은 전액 보조금인데 반해 지출금액은 회원 수입이 포함되었는데도 수입(7,210,875원)과 지출(7,210,875원)을 딱 맞추어 잔액을 0원으로 정산해 받아 의도적으로 짜맞추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영천시가 2021.12.15. 자 사용 영수증(소고기 구입) 250만원을 6개월이 지난 지난 6월 15일에 재발급 받아 오도록 지시해 보내주기의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이 같은 재발급 영수증 지시에 대해 해당 담당자는 "소고기 250만원(5만원×50명분)은 실제 구매하였고, 또 회원 일부에게 구매 확인을 했다"면서 "영수증 첨부을 위한 일환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제보자들은 공직자를 신뢰하지 못하는 실정.

◆영천시와 동부동복지센터 해명

동부동복지센터 담당자는 "보조금이 회장 자녀 개인 명의로 이체한 것도 확인됐으며, 경로당에서 개인 통장으로 보조금을 옮겨 사용하기는 했으나 금액적으로는 따로 사용한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그러나 "민원이 제기된 부분이니 명확하게 밝히고 새로 논의해서 새 회장을 선출하는 선에서 마무리하기로



담당자에게 수차례 연락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없는 상태다. 이처럼 확인도 금액도 맞지 않는 등 쉬쉬하며 축소 은폐하기 급급한 모양새는 영천시가 의도적으로 덮으려는 의혹을 받는 이유다.

앞서 Y경로당은 지난 10여년 전에도 K회장이 보조금을 빼돌려 당시 500만원을 환불한 후 회장직에서 물러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गया 했다. Y경로당은 이번에도 L회장 등의 보조금 '부당사용' 등 '착복' 의혹이 불거지면서 회장직을 박탈당하고 현재 새 회장이 선출돼 있다.

◆제보자, 보조금 횡령 축소하려는 공무원들 경찰에 고발해야

때문에 제보자들은 "보조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사용하는 자체가 위법이다. 카드도 개인적으로 사용한 의혹이 짙다. 실제 1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영수증이 없어도 공무원이 오히려 두둔하는가 하면 부족 금액을 환수해 투명한 보조금 사용의 환경을 조성해야 할 공무원이 오히려 민원인의 문제제기에는 소홀하고 쉬쉬하며 덮기에 급급한 것은 공직자의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권력을 남용한 것이다"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축소하려는 공무원을 경찰에 고발하던지 아니면 상부기관에 의뢰해 철저히 조사해 다시는 이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다"며 영천시 공무원의 억지 끼어 맞추기 이상한 정산법을 비난했다. 장지수 기자 [연결기사 11면 사실]

민선8기 최기문 영천시장 공약사업 점검

9월 최종 확정 예정 산업·복지 등 중점분야 30건, 미래 먹거리 발굴 추진

민선8기 최기문 영천시장의 공약사업이 윤곽을 드러냈다.

영천시는 지난 7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최 시장 공약사업 담당 부서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8기 공약사업 보고회'를 개최하고 시민 불편사항 개선, 미래 먹거리 사업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사전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서 ▲산업·경제 10건 ▲문화·관광 3건 ▲복지·교육 11건 ▲농업 6건 등 4대 중점분야 총



30개 공약사업으로 선정됐다.

영천시는 이번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8월 중 공약이행 시민평가단을 구성,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후 9월 공약사업을 최종 확정하고, 연 1회 이상 자체점검 및 평가를 실

시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최기문 시장은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인 만큼 초기 계획부터 내실 있는 실행 계획을 수립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지수 기자

영천시 세정과 김태엽 담당, 사례 발표 우수상

체납자와 소통 갈등 최소화

지방세 체납을 강력하게 뿌리뽑겠다던 영천시가 반대로 체납자와 소통하면서 오히려 설득을 유도하는 등 강온 양면전략을 펼쳐 경북도로부터 체납세 징수 우수사례로 인정받았다.

시는 지난달 30일 경북도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2022 세외수입 및 체납세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세정과 김태엽 징수담당이 우수상을 수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북도는 체납세를 담당하고 있는 각 시·군 세무공무원들을 상대로 체납징수기법을 공유하고 담당자들의 실무능력과 전문지식 향상



을 위해 매년 이같은 발표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 시 세정과 김태엽 세입관리징수담당은 '강온양면 전략으로 체납세 뿌리 뽑는다!'라는 주제로 체납자와 소통해 갈등을 최소화하는 한편 협력적 방식으로 유도해 체납세를 징수한 사례가 좋은 평가를 받아 우수상을 수상하고, 상금 60만원을 받았다. 김효정 기자

생존형 영양·식생활교육이란?

혼자 남은 학생 끼니 해결 교육

경북교육청은 영양교사 동아리(영양 e)와 협력해 지난 8월 ~ 9월 양일간 경주 감포초등학교 영양교육실에서 혼자 끼니를 해결해야 하는 학생을 위한 생존형 영양·식생활 교육 영

상을 제작한다고 밝혔다.

생존형 영양·식생활교육이란 최근 맞벌이 가정 증가와 코로나 영향으로 혼자 집에서 끼니를 해결해야 하는 학생이 증가 하지만 대부분 학생은 기본적인 조리도구의 사용이나 조리를 어려워 하는 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 영상은 1차시- 조리도구 및 기구 사용 방법, 2차시- 냉동식품과 간편식품 조리 방법, 3차시- 간단한 볶음밥 및 요리 등 3단계다.

교육청 관계자는 조리가 어려워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등으로 한 끼 식사를 해결하는 학생에게 도움을 주고, 저학년 학생들도 요리를 쉽게 이해해 다양한 수업에 활용 가능한 교육 영상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영천시, 지방세 체납자 특별 징수팀 꾸려

1일부터 31일까지 강력 징수

영천시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 특별 징수에 나선다. 시는 이달부터 오는 31일까지 한 달 동안 지방세 체납 특별 징수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집중 징수에

들어갔다.

지난 4, 5월에 체납세 1차 정리가 간 동안 시는 체납세 10억원 정리를 체납처분 8억원의 실적을 올렸지만 여전히 지방세 미납자가 많아 이번에 징수 독려반을 꾸려 적극 징수에 나서기로 했다.

경상북도, 코로나 엔데믹 갈증...여름 축제로 관광 특수 노린다

7월~8월 휴가철 이용해 관광으로 지역경제 살리기 축제 러쉬
라면캠핑축제(구미), 펫콘서트(청도), 분천산타(봉화), 한여름밤의축제(상주)



코로나 엔데믹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해제 되면서 경북도는 관광·여행에 대한 갈증이 한꺼번에 폭발해 여행 증가세가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道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증가세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해 각종 여름 축제로 휴가철 여행·관광 특수 행락객을 경북으로 유입시킨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道는 경북의 경제를 문화·관광에서 찾겠다는 각오로 이달 30일 문화체육관광부 대표축제인 봉화은어축제를 그 시작으로 7~8월 여름철 휴가기간에 맞춰 경북지역 축제를 일제히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5일 경북도 발표에 따르면 5월말 기준 경북 관광객수 1384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가 증가했다. 이는 지난 5월부터 본격적으로 개최된 대면·오프라인 축제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했다.

이같은 여행수요를 다양하고 이색적인 여름축제로 휴가철 행락객의 발길을 경북으로 돌린다는 경북도의 구상이다.

축제 첫 테이프는 먼저 봉화은어축제다. 지난달 30일 오전 11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봉화에서 COOL하게! 은어로 FUN하게'를 주제로 내달

7일까지 봉화읍 내성천 일원에서 개최된다. 미스트롯 콘서트, 한여름밤의 작은 음악회, 은어축제 버스킹, 지역 트롯신이 떴다 등 음악이 있는 여름 콘텐츠 프로그램으로 관광객 맞을 준비를 마쳤다.

축제는 7월부터 봉화(분천 한여름축제), 안동(월영야행), 상주(한여름밤의축제), 영덕(황금은어축제), 포항(영일만곶은돌장어축제), 봉화(은어축제)등 10여곳에서 여름 관광 특수를 경북으로 불러 들인다.

내달 5일에는 '생명이 살아있다! 무지개빛 성주'를 주제로 성주생명문화축제가 내달 14일까지 개최되면서 8월 6일 청도 반려동물콘서트가 이어지고, 예천(세계곤충엑스포), 성주(생명문화축제), 안동(섬머페스티벌), 포항(철길숲야행축제), 구미(라면캠핑페스티벌), 영양(캠핑과함께

하는 별빛 반딧불이 체험), 울릉(오징어축제) 등 10여곳이 경북을 축제로 물들인다.

특히 봉화에서는 한여름 산타마을 축제가 이달 23일부터 내달 21일까지 한달여간 열리고 봉자(봉화의 자생꽃)페스티벌이 이달 28일부터 내달 7일까지 열리는 등 7월과 8월에 경북의 한여름밤을 이색적이고 풍성한 축제들이 채울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불볕더위 여름, 시원한 곳을 찾아 떠나는 여름 휴가철 행락객을 위한 축제를 다채롭게 준비했다"며 "안전하고 편안한 경북, 코로나로 지친 심신을 회복할 수 있는 최고의 지역인 경북에서 오랜만에 찾아온 휴가를 보내며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지수 기자

행안부 국힘 간사 이만희 의원 "경찰행정지원국 신설 정쟁 대상 아니다"

경찰행정지원부서 신설 위한 정책토론회 가져
일선 경찰업무 급증, 수사공백 국민 피해 안대

이만희(경북 영천·청도) 의원은 "경찰업무조직 신설은 경찰 행정에 관한 국정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첫 걸음"이라며 "경찰행정지원국 신설은 더 이상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함께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찰의 민주적 운영과 효율성 제고 위한 경찰행정지원부서 신설 정책토론회'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 좌장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진행 속에 발제에 나선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에 이어 김태규 변호사와 이희범 자유연대 대표,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이용철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이 지정토론자로 나서 경찰의 민주적이고 효율적 관리방안 등을 다뤘다.

이 의원은 "최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이 비공식적으로 경찰에 대해 직접 통제해 폐습을 반복할 수 없다"며, "행정안전부 내 경찰업무조직의 신설을 통해 이러한 폐습을 끊어내고 경찰 행정에 관한 국정운영 정상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또 이 의원은 "일선 경찰들의 수사업무 급증으로 인한 수사공백으로 국민적 피해가 있어서는 안된다"며, "경찰 관리체계의 개편 뿐만 아니라, 경찰의 인력충원, 근무여건 및 처우



지난 6월 29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경찰행정지원국 신설에 대한 정책토론회 자리에서 "경찰행정지원국 신설은 더 이상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간사 이만희 의원, 오른쪽에는 국민의힘 성완중 의원(정책위의장)

개선과 복수직급제 등을 통해 국민의 인권보호와 민생치안에 전념하는

경찰로 거듭날 수 있게끔 앞으로도 관련 논의를 주도하여 실질적인 보

안책 마련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장지수 기자

장숙희 경북도 주무관, 자랑스런 공무원상

경북도 대변인실 장숙희(행정6급·사진) 주무관이 지난달 29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19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자랑스런 공무원상을 수상했다.

장 주무관은 도정의 주요 시책에 대해 홍보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언론사를 대상으로 도정 주요 현안사업의 내실 있는 홍보 방안 마련과 분석을 통한 적극적 자세로 도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줄 뿐만 아니라 국·도정 시책에 대해 올바른 여론 형성 조성에 기여함을 인정받았다.

특히 투철한 공직관으로 타의 모범이 될 뿐 아니라 묵묵히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며, 개방적인 생각을 가진 공무원으로서 동료 공무원들에게도 귀감이 되고 있다.

한편, 자랑스런 공무원상은 전국 340여 지역신문사로 구성된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가 2004년부터 해마다 지역신문의 날을 기념하면서 각 시·도 협회회의 추천을 받아 중앙회에서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의정대상, 행정대상 등과 함께 수여하는 상이다.

장숙희 주무관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이렇게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감사하다"며, "앞으로 더욱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 정신으로 지역 언론과 소통하며 도정 공감대 형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김효정 기자

영천 '예약국' 공공심야약국 지정

청솔APT상가 위치 22시~25시(새벽1시)

경북 영천시 청솔길 23-6 청솔아파트 상가 105호(망정동) '예약국'이 연중무휴 '공공심야약국'으로 선정돼 지난 1일부터 밤10시 ~ 다음날 새벽 1시(3시간)까지 운영된다.

경북도는 지난달 30일 의료 취약시간대 휴일과 심야시간에 주민이 의약품 구매 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약사에게 복약지도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공심야약국' 7개소(도심형5, 비도심형2)를 선정해 시범운영을 실시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 동안 심야 시간대 약국 운영의 필요성이 요구돼 왔지만 이용 인원이 적고 인력 채용 어려움과 재정부담 등으로 운영되지 못했다. 때문에

경북도는 보건복지부에 공공심야약국 운영비 지원을 지속 요구해 왔으며, 올해 국비 지원으로 시범 운영(전국 62개소)의 길을 열었다.

이번에 시범운영에 들어가는 7개 약국은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심형(포항 서문제일약국, 포항 두꺼비약국, 김천 드림약국, 경산 북광당약국, 칠곡 대구약국)과 10만명 미만 비도심형(상주 수정은누리약국, 영천 예약국)으로 구분된다.

경북에는 포항, 경주, 안동, 구미 등 4개 시 지역에서 11개 약국이 야간운영을 하고 있다.

이번 공공심야약국 운영으로 경북도는 도민의 심야시간대 약품 구입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고, 의약품 오남용 예방과 안전한 투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효정 기자

온라인 '스스로 학업성취인증제' 누적 응시 건수 35만 건 돌파

경북교육청 교육포털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온라인 평가 플랫폼인 '스스로 학업성취인증제'가 지난 달 24일 기준 누적 응시 건수 35만 건을 돌파했다.

'스스로 학업성취인증제'는 지난 2020년 10월 개통해 본인의 학습 정도를 스스로 확인하는 시스템으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과목별로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PC 또는 스마트폰으로 응시할 수 있다.

스스로 학업성취인증제 더 좋아짐!

- 01 최신 문항 50,000개 추가!
- 02 무지개 등급(레벨)제 실시!
- 03 인문서·사이언스·공유 가능!
- 04 과목별 계산편 운영

마이크로지식에서 온기가 느껴! 경북교육청 중등교육과

‘몽치탐정 수수께끼 파일’ 개발...사이버독도학교 웹툰으로 독도 배운다

경북교육청, 사이버 독도학교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7월부터 순차적으로 경북교육청 운영중인 사이버독도학교 홈페이지 내 독도놀이터에 웹툰을 선보일 예정이다.

경북교육청은 앞서 사이버독도학교를 운영해오고 있다.

교육청은 독도를 알리기 위해 ‘몽치탐정 수수께끼 파일’이라는 웹툰을 개발 중이다.

‘몽치탐정 수수께끼 파일’은 초등학생 5학년 주인공 여학생이 탐정 능력을 숨기고 있던 반려견과 함께 독도에서 일어난 의문의 사건 수사 과정에서 독도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 인문 환경, 독도를 지키는 사람들, 그리고 독도의 자원과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학습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사이버독도학교를 개교해 시공간을 초월한 독도교육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학생들 뿐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쉽게 독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독도교육으로 온 국민과 함께 독도 수호의 큰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장지수 기자



경북교육청, 초3~고3 1학생 1스마트기기 보급

스마트 교육 환경 구축 미래교육 대비

경북교육청은 지난달 30일 도내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대상으로 1학생 1스마트기기 보급을 목표로 각급 학교 학생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을 추진해 경북미래교육 체제 전환에 적극 대비하고 있다.

학생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대응으로 학생과 교사가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온·오프라인으로 소통하고 참여하는 융합교육 환경을 마련하고자 하며 교사들이 디지털 변화에 유연한 대처를 하도록

기기 사용 과 수업 적용방법에 대한 온·오프라인 연수를 실시, 늘어난 정보기기의 관리 부담 최소화 해 교육에 전념하도록 정기적인 순회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작년 하반기부터 보급을 준비해온 학생 스마트기기 45,059대를 올해 6월 설치를 완료하여 전체 보급 대상 학생 대비 53%의 보급률을 달성했다. 또, 지난 2021년부터 각급 학교 스마트기기 보급을 학년별 점차적 확대를 해 올해 12월까지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 까지 1학생 1기기 보급을 완료하기 위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북교육청, 체중관리 웹사이트 ‘아이날씬’ 개편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2022년 ‘아이날씬’ 자료 제작 협의회를 지난 8일 경산교육지원청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학생 건강·비만관리 웹사이트인 ‘아이날씬’은 학생들의 저체중과 비만관리 교육에 이용할 수 있도록 2005년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제작해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에 이어 ‘아이날씬’ 사이트의 확대·개편 협의를 진행한다.

이에 변화된 생활습관 및 식습관으로 인해 증가된 신체 불균형 학생들의 건강한 체중관리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 향후 지속적인 협의회 진행으로 아이날



씬 사이트를 확대·개편할 계획이며 자료 개발 위원 10명 참석으로 비만 관리 동영상 시나리오 제작 등 다양한 자료 개발 및 학습지 도서 제작에 대한 협의도 진행됐다.

단포초, ‘인피니티 플라잉’ 공연 관람



단포초등학교(교장 서영진)는 지난 8일 전교생 107명(유치원 포함), 교사 12명과 함께 경주 엑스포 대공원 내 문화센터에서 ‘인피니

티 플라잉’ 뮤지컬 공연을 관람했다. 공연은 기계체조, 리듬체조, 비보이 등이 결합된 종합 퍼포먼스로 세계 최초의 로봇팔과 3D 홀로그램 접목으로 다이나믹하고 판타지한 효과의 예술공연이다.

신라 화랑이 현대로 넘어 온 도깨비를 잡기 위해 2022년 신라고등학교로 시간 이동을 하면서 벌어지는 해프닝 이야기 전개로 학생들이 신라시대를 시작으로 현대까지의 빠른 시간 이동으로 역사에 대한 관심을 갖기 위한 공연이다.

영천중, 화랑의 얼 계승 ‘화랑호연지기’ 체험

영천중학교(교장 김미라)는 지난 7일 본교 1학년 학생들이 화랑교육원에서 ‘2022 화랑호연지기’ 체험 활동을 진행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숙박형으로 진행됐고 국궁 체험, 화랑공동체활동, 신라역사여행등으로 학생들이 ‘새화랑’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

화랑교육원은 자아존중, 이웃사랑, 충효실천의 원훈아래 충(忠), 효(孝), 신(信), 용(勇), 인(仁)의 화랑정신을 창조적으로 계승 하는 양질의 수련활동을 진행하고 자연 친화 환경



에서 심미적 감성 역량을 키우고, 자기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능력, 타인과 갈등을 조정하는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킨다.

북안초, 전 교원대상 ‘교사 수준 교육과정’ 연수



북안초등학교(교장 이강수)는 지난 7일 전교원 대상으로 ‘교사 수준 교육과정의 이해와

실제·시놀이 해볼까?’라는 주제로 경산초등학교 교감 정지혜 강사와 현장중심 교사 수준 교육과정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의 방향과 변화, 교사의 자질, 학생주도형 수업등으로 필요성과 의미를 살피고 알아보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또, ‘시놀이 해볼까?’라는 주제로 교사 수준 교육과정 구성에 도움이 될 실제적인 방법들을 제안하고 실습해보는 활동으로 이어졌다.

청통초·지곡초, 2022 계절체험학습 운영

청통초등학교(교장 임진성)는 지난 8일 드림랜드(고경면)에서 지곡초등학교(교장 정기원) 전교생과 함께 공동교육과정 운영 프로그램인 ‘2022 계절체험학습’을 실시했다.

본 행사전 영천전투호국기념관 관람 후,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내게 하기 위한 수상 안전교육과 물놀이 중심으로 진행했다.

한편 청통초등학교와 지곡초등학교는 2016년부터 매년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양교 학생들이 함께하는 수업과 체험학습 운영 등



으로 소규모학교 학생의 교육질 향상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포은고, 전문직업인 초청 꿈드림 특강



포은고등학교(교장 박영남)는 지난 11일 1·2학년 대상으로 ‘전문직업인 초청 꿈드림’ 특강이 실시됐다.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대한 안목과 직업 세

계의 다양함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직업인의 업무와 현장 경험담을 강의와 질문 형식으로 진행됐다.

직업인 선택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 특강을 맡은 전문직업인은 대구대 간호학과 졸업후 현재 칠곡경북대학교 간호사로 근무하는 김은지 강사가 맡게 되었다.

이번 강의는 간호사의 장·단점, 간호사가 되기위해 구체적으로 준비할 것과 실제 현장에서부터 일 들까지 가감없이 공개해 취업 현황 등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계기가 됐다.

임고초, 학생들이 직접 운영한 ‘알뜰장터’

나눔과 봉사의 가치함양

임고초등학교(교장 강석중)는 지난 6일 6학년 13명의 재학생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직접 계획 운영한 알뜰장터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알뜰장터는 6학년 도덕 교육과정 중 ‘작은 손길이 모여 따뜻해지는 세상’ 단원을 재구성해 나눔과 봉사의 가치를 함양하기 위한 활동의 장으로 실현됐다.

임고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 재학생들은 한 달 동안 ‘아나바다’의 슬로건 아래 물품을 수집하고 행사 당일 대부분 1000원 이하로



저렴하게 판매했다.

이번 행사를 통한 수익금과 남은 물품(책, 옷, 장난감 등)은 어린이회 회의를 통해 기부처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철우 제33대 경상북도지사 취임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 것” 천명

경북이 지방시대 주도
각계각층 900여명 참석



이철우 <사진> 경북도지사는 7월 1일 오후 3시에 도청 동관관에서 민선 8기 제33대 경상북도지사 취임식을 갖고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 것”을 천명했다.

앞서 이 지사는 이날 오전 8시 30분에 경북도 간부공무원들과 안동충훈탑을 참배하고, 오전 11시에는 도청 공무원 노동조합과 기자회견을 방청하는 것으로 민선 8기 도정의 힘찬 새 출발을 알렸다.

이날 취임식에는 서해 수호 유가족을 비롯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이 초대받아 지

역 시장·군수와 도의원을 비롯한 각 기관단체장 등과 함께 9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 지사는 ▷사회통합에 기여한 도민 ▷자랑스러운 우리시대 숨은 거인 ▷도전하는 2030세대 청년 ▷공동체 사랑을 실천한 도민 ▷대한민국을 세계에 빛낸 도민 ▷기타 도정발전에 기여한 도민 등 총 152명을 특별 초청해 이날 자신의 재선 취임식을 계기로 경북의 힘을 모으는 출발점 의미에 방점을 찍었다.

이철우 도지사는 취임사에서 “지난 민선 7기 4년은 경북을 다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세우기 위해 뛰어온 시간이었다면, 민선 8기는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열어,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대전환의 시간”이라며 민선 8기 4년간의 출발점 각오를 밝혔다.

또 “고등학교만 졸업하고도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고, 일찍 결혼해 아이 낳고 기르는 행복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행복사회를 열어가겠다”며 “이를 위

해 강력한 투자유치 진흥정책으로 경북을 첨단산업의 왕국으로, 문화예술과 관광의 천국으로 만드는 등 도정역량을 결집해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의 길을 열어나갈 것”은 포부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철우 도지사의 민선 8기 취임을 축하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다.

한편, 이날 공연은 도립교향악단 협연과 함께 도청 어린이집 7세반 40여명이 ‘내가 바라는 경북’ 노래에 맞춘 감쪽같은 율동도 선보이고, 에코그린합창단의 선율로 참석자들과 도민의 노래를 제창하는 등 이 도지사의 취임을 축하하고 민선 8기 경북도정의 성공을 기원했다.

이 지사는 취임과 동시 도청 홈페이지에 ‘민선 8기 도지사에게 바란다’ 게시판도 설치해 도민의 다양한 건의사항과 의견을 접수 받는다.

장지수 기자

“오직 시민만 바라보며 달려가겠다”

최기문 영천시장, 대 시민 정치권과 소통 화합 방안

“오직 시민만 바라보며 달려가겠다” 지난 7월1일부터 민선 8기 최기문 영천시장의 4년 임기가 시작되면서 무소속 최 시장의 재선 당선소감 첫 일성이다.

최 시장은 지난 4일 ‘의회와의 소통 및 화합 방안’을 묻는 본지 질문에 “지역구 국회의원, 도·시의원들이 여당 소속인 만큼 영천 발전을 위해서라면 소속 정당을 떠나 누구라도 찾아가 협조를 구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본지는 서면으로 최 시장의 민선8기 재선 성공에 대한 소감과 최근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대 시민 소통과 화합이라는 화두에 대한 방안 및 앞으로 4년 임기 동안 새로운 시정 각오에 대해 간략하게 질의했다.

다음은 본지 질문에 대한 최 시장의 간략한 답변이다.

◆재선 당선 소감은?

고향 영천을 위해 한 번 더 일할 기회를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선거에서 저는 우리 영천 시민들의 위대함을 다시 한 번 느꼈다. 공정하고 진실된 정책 중심의 선거를 만들어 주셨고, 수준 높은 영천시민의 ‘의로운 정신’을 보여 주셨다. 영천을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달라는 시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오직 시민만 바라보며 열심히 달려가겠다.

◆의회와의 소통 및 화합 방안은?

지난 1일 민선 8기와 제9대 영천시의회가 공식 출범했다. 지난 4년은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제8대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크고 작은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시민 행복과 영천 발전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한마음으로 달려왔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제9대 의회도 공동의 목표 앞에서는 한마음일 것이다.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진심을 다해 소통하고 협력해나가겠다.

시민 행복과 영천 발전을 위해서라면 소속 정당을 떠나 누구라도 찾아가 협조를 구하겠다. 또한 지역구 국회의원, 도·시의원들이 여당 소속인 만큼 여당의 이점을 살려 현안해결 및 국가예산 확보 등에도 한층 더 힘을 실어줄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의 시정각오는?

존경하는 영천 시민 여러분! 지난 4년간 시정에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협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민선 8기 4년도 오로지 시민만 바라보며 ‘시민이 행복한, 위대한 도시 영천’을 만들어 가는데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영천의 더 큰 도약과 살기 좋은 영천을 향한 발걸음에 시민여러분들도 항상 함께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장지수 기자

정한표 이사장, 인재육성 ‘정한표 장학회’ 설립

사제 3억 출연 대학생 3~4명에 연 1천만원 장학금 지급



영동새마을금고 초대 이사장인 정한표(사진) 회장이 자신의 사재를 털어 장학재단을 설립하면서 본격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에 나선다.

정 회장은 지난 11일 본지에 들리 “장학회 명칭은 ‘정한표 장학회’로 초

기 출연금은 3억원이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정 회장은 영천시 망정로 30번지 내 자신이 설립한 ‘관덕지재’에 사무실을 두고 지난 6월 2일자로 세무서에 장학재단 고유번호를 등록하는 한편, 9명의 장학회 이·감사 구성을 마치고 본격 지역 인재육성에 나서게 됐다.

정한표 회장은 “올해 연말부터 1년에 1천만원씩 영천시에 주소를 둔 지역 4년제 성적 우수 대학생 3~5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히고 “영천에서 태어나 80평생을 영천에

살아오면서 늦게나마 영천시민을 위해 장학사업을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앞서 2016년 10월 7일 영천시 장학회(재단)에도 1억5백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하는 등 평소에도 지역 인재양성에 깊은 관심을 가져온 것으로 전해지면서 지역사회 귀감이 되고 있다.

올해로 만 85세인 정 회장은 자신의 ‘관덕지재’를 장학회 사무실로 사용하도록 무료로 임대했다. 또 “그동안 시민들로부터 받아 온 도움을 늦게나마 지역사회에 되돌려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이번 ‘정한표 장학회’ 설립 배경과 심경도 밝혔다. 김효정 기자

‘축’ 정한표 장학회 설립

저희 ‘정한표 장학회’가 지난 6월2일자로 설립되어 올 연말부터 매년 1천만원씩 지역에 주소를 둔 우수 성적 대학생 3~5명에게 장학금 지급을 개시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22. 7. 11

 <p>‘정한표 장학회’ 회장</p>	<table border="0"> <tr><td>회 장</td><td>정한표</td></tr> <tr><td>부회장</td><td>이호원</td></tr> <tr><td>수석재정이사</td><td>정연형</td></tr> <tr><td>섭외총괄이사</td><td>추영호</td></tr> <tr><td>감 사</td><td>정동술</td></tr> <tr><td>이 사</td><td>오기덕</td></tr> <tr><td>이 사</td><td>정재용</td></tr> <tr><td>이 사</td><td>정은빈</td></tr> <tr><td>총 무</td><td>이순희</td></tr> </table>	회 장	정한표	부회장	이호원	수석재정이사	정연형	섭외총괄이사	추영호	감 사	정동술	이 사	오기덕	이 사	정재용	이 사	정은빈	총 무	이순희	 <p>정한표 장학회 연락처 010-3502-5725(총무 이순희) 주소 : 영천시 망정로 30(관덕지재 정자)</p>
회 장	정한표																			
부회장	이호원																			
수석재정이사	정연형																			
섭외총괄이사	추영호																			
감 사	정동술																			
이 사	오기덕																			
이 사	정재용																			
이 사	정은빈																			
총 무	이순희																			

올해도 이어가는 영천 새마을지도자협 '사랑의 감자 나눔' 실천

영천시에 감자 10kg 100상자 기탁... 불우이웃에 써 달라

새마을지도자영천시협의회(회장 이승원)가 올 봄에 파종한 감자를 지난 5일 수확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탁했다.

지난 5일 협의회에 따르면 이날 금호읍 덕성리 새마을농장에서 새마을회원 50여 명이 올 봄 파종한 햅감자 10kg 100상자를 수확해 영천시에 기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의 '사랑의 감자 나눔'은 매년 휴경지를 이용해 직접 감자 농사를 지어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지원하는 활동이다.

지난 2020년(유석권 지회장)에는 녹전동 임베디드연구원 인근 약 800여평의 유휴지에 부녀회와 새

마을회원 등이 심은 감자를 수확해 당시 10kg70여 상자를 영천시에 기탁했다.

이승원 회장은 "가뭄에도 불구하고 작황이 좋아 많은 분에게 사랑의 감자를 나눠 줄 수 있어 다행이며, 회원들의 화합과 정성의 결실로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도움을 베풀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기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감자를 수확한 경작지에는 배추와 무를 재배하여 11월경 '사랑의 감장 담가주기' 행사를 통해 직접 담근 김장김치를 지역 내 소외계층 나눔에 사용할 계획이다.

장지수 기자



무연고 묘소 참배한 국립영천호국원 "나라 위한 숭고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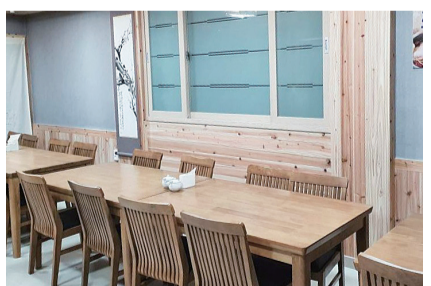
국립영천호국원(원장 이상순)이 7월의 첫날, 7월에 기일을 맞이하는 무연고 국가유공자 묘소를 찾아 참배하고 나라 위한 숭고한 희생의 넋을 위로했다.

호국원에는 찾아올 가족 및 후손

이 없는 무연고 국가유공자 189위가 야외묘역과 총령당에 모여져 있다. 매월 초 전직원이 현충탑을 참배한 후 이같은 무연고 묘소에 빛바랜 조화를 교체하고, 비석닦기 등 묘소 주변 정화활동을 해오고 있다.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 지역 25개 업체 선정

도비 6900만원, 시비 1억5600만원
자부담 1억8900만원(40%) 투입



올해 경북문화관광공사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사업 공모 선정결과 지역에서는 음식점 등 총 25개 업체가 신청해 100%(25개업체) 선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영천시는 경상북도와 경북문화관광공사가 지난 2월 이같은 공모로 신청을 받아 지난 6월 23일 지역업체 중 음식점 23개소, 숙박업 2개소 등 총 25개 업체를 선정해 최종 선정발표해 총 사업비 4억1400만원(도비 6900만원, 시비 1억5600만

원, 자부담 1억8900만원(40%))으로 현재 시설개선사업이 진행 중이라 밝혔다.

이 사업은 관내 주요관광지 및 관광지 인근 음식점과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좌식을 입식으로 교체하는 등 시설 환경 개선으로 관광객 편의 제공이 목적이다.

올해 4년째인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사업은 매년 2월에 공고가 나면 3월쯤 신청해 6월에 선정결과가 발표되고, 사업기간은 당해 연말까지다. 지난해에도 영천지역에서는 음식점 42개소 숙박업 1개소가 신청해 모두 25개 업체만 선정된 바 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사업주와 손님 모두에게 인기가 많은 사업에 앞으로 관내 업체가 보다 많이 선정되기를 바란다"며 "4년째 진행 중인 시설환경개선사업으로 영천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영천의 이미지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장지수 기자

경산 와촌, 올해 '일본뇌염 매개 모기' 첫 발견

경북보건환경연구원 '작은빨간집모기' 채집

일본 뇌염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 바이러스 매개체인 '작은빨간집모기'가 경북 경산시 와촌에서 올해 처음 발견(채집)됐다.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4일 바이러스성 일본뇌염 유행 예측을 위해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2차례에 경산 와촌면 일대 우사(牛舍)에서 채집된 모기들을 대상으로 작은빨간집모기의 유·무와 개체수를 분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같은 빨간집 모기는 지난해에

비해 1개월 정도 이른 것으로 올해는 경산 와촌에서 지난달 27일에 채집된 모기들에서 작은빨간집모기의 존재를 확인됐고, 부산은 올해 4월7일 첫 발견돼 일본뇌염 주의보가 발령됐다.(질병관리청).

작은빨간집모기는 사람에게 일본 뇌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매개체이며 축사나 논, 웅덩이 등에 서식하고, 주로 야간에 활동하며, 4월부터 10월 사이에 전국적으로 관찰되고, 8-9월에 가장 활발하게 증식하므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는 무증상이



고, 감염자의 250명 중 1명 정도에서 뇌염 증상을 나타내며, 사망률이 20~30%에 이른다. 최근 3년간 전국적으로 일본뇌염 환자는 66명, 경북은 1명의 일본뇌염 환자가 발생했다(질병관리청).

김효정 기자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표적 먹거리 바이오경제 시대 연다

경북도, 경북 바이오생명엑스포 조직위 출범식 10월 13~15일, 2022 경북 바이오생명 엑스포 개최 확정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표적 먹거리 산업인 바이오산업이 부각되면서 기술 발전과 융합으로 급격하게 시장이 팽창되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가 발빠르게 바이오경제 시대에 주목한다.

경상북도는 지난 12일 도청 화백당에서 2022 경북 바이오생명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경북 바이오생명엑스포 조직(운영)위원회 창립 총회를 개최하고 본격 바이오산업 먹거리 사냥에 나섰다.

이번 조직위원회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공동위원장인 권기창 안동시장,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대표이사를 비롯한 산업계, 학계,

연구계 인사를 중심으로 조직위원회 12명, 운영위원회 12명으로 구성됐다.

조직(운영)위원회는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박람회, 컨퍼런스 등 주요 사항 결정, 행사운영 전반에 관한 지원 및 자문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경북도는 오는 10월 13일 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도청 내 새마을광장, 동라관 및 안동시 일원에서 경북 바이오생명엑스포를 개최기로 했다.

또 ▷바이오 기업 박람회 ▷바이오 미래 포럼·백신산업 포럼 및 컨퍼런스 ▷기업 설명회 및 수출투자

상담회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조직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구성을 통해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코로나19로 백신·치료제 및 바이오 분야 신산업에 대한 연구와 관심이 높아지면서 경북 바이오생명엑스포를 통해 급격하게 팽창하고 있는 바이오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본격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2030년경 본격적인 바이오경제 시대가 열릴 것으로 예측한 가운데 도는 지역 바이오산업 거점기관을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미래 성장동력인 바이오산업 선점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효정 기자



영천시의회 제9대 원구성 마무리...의정 활동 본격 가동

〈오는 18일 제224회 임시회 개회〉

의장 하기태, 부의장 우애자, 산업건설위원장 이갑균, 총무위원장 김상호, 운영위원장 박주학
하기태 의장, “제9대 전반기는 시민들로부터 더 신뢰받도록 노력하자” 당부
9대 본회의 첫 이의, 이영우 의원... “동일 지역구 의원 총무위 중복 배정” 불만

영천시의회 제9대 전반기 원구성이 모두 마무리되면서 4년 임기 의정 활동이 본격 가동됐다.

영천시의회(의장 하기태)는 지난 4일 제2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과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을 마치면서 앞서 지난1일 선출된 하기태 의장과 우애자 부의장을 포함해 모든 원 구성이 최종 마무리됐다.

이로써 영천시의회 전반기 원구성은 ▲의장 하기태, ▲부의장 우애자, ▲운영위원장 박주학, 부위원장 이영기 ▲총무위원장 김상호, 부위원장 배수애 ▲산업건설위원장 이갑균, 부위원장 김용문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각 상임위

‘부위원장’은 당초 ‘간사’의 명칭을 변경한 것이다.

또 의회 ▶운영위원회는 박주학·이영기·김선태·김상호·김용문·이갑균 의원 등 6명 ▶총무위원회는 김상호·배수애·우애자·이영우·이영기 의원 등 5명 ▶산업건설위원회는 이갑균·김용문·김선태·김종욱·권기한·박주학 의원 등 6명이 각각 선임됐다.

이날 상임위원회 선거에서 (조선·비례)박주학 운영위원장은 재적의원 12명, 출석의원 12명 중 9표를 얻어(김선태1표, 김용문1표, 김상호1표) 과반 득표로 위원장에 선출됐다. 또 (조선)김상호 총무위원장은 12명 중 9표로 3표를

얻은 이영기 의원을 누르고 당선됐으며, (재선)이갑균 산업건설위원장은 1표를 얻은 김용문 의원을 제치고 11표를 얻어 당선됐다.

[박주학] 운영위원장은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선진 의회가 되도록 의원의 전문성을 높여 공부하는 의회를 만들겠다”며 당선 소감을 밝혔다.

[김상호] 총무위원장은 “시민복지를 우선해 시민 한분한분의 의견에 귀 기울여 市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의원으로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갑균] 산업건설위원장은 “일자리와 건설, 농업 등 市 발전의 답은 현장과 시민에게 있다”며 ‘8대 운영위원장의 경험을 살려 동료 의원들과 협력해 나가는 의회상을 만들겠다’고 당선 소감을 피력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하기태 의장의 각 상임위원 배정 설명에 이영우 의원이 본회의 첫 이의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동일 지역 의원이 총무 위원회에 중복 배정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다른 의원)각 상임위 배정에 대해서도 저는 사전에 정보를 받지 못했다”며 불만을 토로했지만 하 의장은 “전화로 같은 나-선거구 의원 중 김종욱 의원의 산업건설위원회 배정을 말씀드렸다”는 답변으로 정리되고 회의는 순탄하게 진행됐다.

하기태 의장은 이날 회의를 종료하면서 “제9대 전반기는 시민들로부터 더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고 제9대 영천시의회 원구성 제223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했다.

한편 영천시의회는 오는 7일 첫 간담회를 열고 집행부로부터 조례(안)에대한 첫 보고를 받는다. 또18일에서 28일까지 11일간 제224회 임시회도 예정돼 있다. 제224회 임시회에서는 집행부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이 처리될 전망이다. 장지수 기자

제9대 영천시의회 전반기 원구성

의장

하기태



부의장

우애자



이갑균



김용문



김선태



김종욱



권기한

산업건설위원회

- 위원장 이갑균 의원
- 부위원장 김용문 의원
- 위원 김선태 의원
- 위원 김종욱 의원
- 위원 박주학 의원
- 위원 권기한 의원

총무위원회

- 위원장 김상호 의원
- 부위원장 배수애 의원
- 위원 우애자 의원
- 위원 이영우 의원
- 위원 이영기 의원

운영위원회

- 위원장 박주학 의원
- 부위원장 이영기 의원
- 위원 김선태 의원
- 위원 김상호 의원
- 위원 김용문 의원
- 위원 이갑균 의원



김상호



이영기



배수애



박주학



이영우

청도군의회, 제9대 원구성 마무리 집행부와 동반자적 협력 의정활동

청도군의회(의장 김효태)가 제9대 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군의회는 지난 4일 제284회 임시회를 열어 의장에 김효태 의원(59년, 나선거구), 부의장에 김규봉 의원(72년, 가선거구), 운영행정위원장에 이승민 의원(76년, 가선거구), 산업경제위원장에 이수연 의원(64년, 나선거구)을 선출해 9대 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했다.

이날 의장 선출에서 재적의원 7명 전원이 불협화음 없이 김효태 의원을 만장일치로 추대(선출) 형식으로 선출 한 한편 (조선)김봉규 부의장은 7명 중 5표를 얻어 당선되면서 의회 화합과 소통 의지를 강하게 나타냈다.

김효태 의장은 “군민의 큰 기대에 부응하고 진정으로 군민이 주인이 되는 행복하고 화합된 청도건설을 위해 열정을 다할 것이며,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하면서 갈등관계가 아닌 상호 동반자와 협력자로서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또 김 의장은 “청도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낮은 자세로 군민의 뜻을 받들고 군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박성근 의원, 김태이 의원, 김규봉 부의장, 김효태 의장, 이수연 산업경제위원장, 전종술 의원, 이승민 운영행정위원장

개원 후 첫 특강이다.

이날 강의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운영 △의정활동 전략과 방법 △조례안 발의·심사 △예산·결산의 이해와 심사 등 업무에 필요한 실질적인 의정활동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강에 참여한 조선 A의원은 “조선으로 집중해 강의를 들었다. 밖에서 느꼈던것보다 의정활동에 실질적 도움이 될것으로 확신한다”며 “앞으로도 이같이 공부하는 기회가 더 많으면 알찬 의정활동에 훨씬 도움이 될것으로 본다”면서 각오를 다졌다.

하기태 의장은 “제9대 영천시의회가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 할 예정”이라며 “의원님들이 주경야독하는 심경으로 빠른 시일 내 시민들께 바른 의회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지수 기자

영천시의회, 제9대 개원 후 첫 의원 역량강화 특강



의정활동 조기 정착

의원 12명 중 조선 비중이 8명(68%)인 영천시의회(의장 하기태)가 오는 18일에 예정된 제224회 임시회를 앞두고 선재적 의원들의 역량 강화에 나섰다.

관계법규를 이해하고 의회운영실무 등을 파악해 시민들이 요구하는 수준높은 의회상 구현을 위한 예·결산, 조례, 회의 용어 등 기본 지식 함양이 목적이다.

의회는 지난 12일 간담회장에서 이같은 목적으로 지방의정연구소 최민수 교수를 초빙해 『지방의원, 4년간 의정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제9대 의회

이만희 의원,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대표발의

연소득, 주택가격 제한 없이 200만원...소급적용 확대 이만희 의원 "조속한 법 통과로 대국민정책 효과 최대화"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이 4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지난 2020년 7월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위한 제도 도입을 위해 개정되었으

며 감면 조건으로 수도권 4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의 주택가격 기준과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의 소득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수도권 지역 주택의 중위가격은 2020년 대비 7천만원 상승한 5.1억원, 아파트의 경우 1.1억원 상승한 6.3억원인 것으로 나타



나 국민들이 제도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운 현행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1일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연소득, 주택가격 제한 없이 현행 제도에서 최대 감면액인 200만원의 취득세를 면제해 수혜대상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 행안위 간사인 이 의원은 현행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주택가격과 연소득 기준을 삭제하고 정부가 정책을 발표한 직후 취득한 주택도 모두 소급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 빠르게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만희 의원은 "그동안 서울과 수도권 지역 집값이 폭등하면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제도가 유명무실

해졌다"면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의 현실화는 지난 대선 당시 여야 구분없는 부동산 공약이었다"며 법안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지방재정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정부 정책의 수혜 대상은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속한 법 통과로 국민이 빠르게 정부 정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지수 기자

자원봉사센터, '스타빌리지 27호 사업' 완성

자양면 보현3리 선정 지역 10단체 재능기부 모두 150명 참여

영천시자원봉사센터(소장 구흥우)가 주최·주관하는 '영천행복마을 스타빌리지 27호 사업'이 8일 완료됐다.

스타빌리지 사업은 지역 내 마을

을 선정해 자원봉사자의 재능기부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 ▲생활서비스 ▲의료봉사 활동 ▲생활건강 지원 등 매년 3~4개 사업을 지속해 오고 있다. 2014년 2월 고경면 부리를 시작으로 올해 27호 사업이 이날 완료됐다.

이날 사업은 자양면 보현3리(사곡길) 마을이 선정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영천시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해 윤난숙 경상북도 자원봉사센터장 등 지역 10개 자원봉사단체가 힘을 보탰다.

주요 내용은 징금다리봉사단이 집수리를 맡고, 아름다운봉사회는 LED 등고체, 아마추어무선연맹 영천시지부는 방충망 교체, 한마음회의 급수 및 안내 등으로 각 분야별 분업화로 이뤄졌다.

이날 참여봉사단체는 ▶징금다리봉사회 ▶아름다운봉사회 ▶자유총연맹 영천시지부 ▶아마추어무선연맹 영천시지부 ▶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영천시지부 및 영동미용봉사단 ▶애안당안경 ▶수지침봉사단 ▶경북개발공사 및 가스공사 ▶한마음봉사단 ▶중앙로타리클럽 등 10개 단체다.

자원봉사센터 관계자는 "영천행복마을 스타빌리지 사업"은 지속적으로 시행할 사업으로 앞으로도 주민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市 전역으로 나눔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화남면에 38억 투입 생활체육·주민 활성화 활력센터 조성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내년부터 4년간 추진

경북 영천시 화남면(면장 정해동)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2023년부터 4년간 중장년층을 기반으로 생활체육 및 주민 교류를 위한 활력센터 등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영천시 지역활력과(과장 이동만)는 지난 4일 화남면 삼창리 일원에 활력 인력 육성, 주변 배후 마을로

서비스 전달을 위한 활력 배달 프로그램, 활력 공유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 사업을 통해 화남면민들에게 차별 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市 관계자는 화남면 행정복지센터 정면에 조성될 이번 활력센터는 면 소재지 정비 사업을 통해 이미 조성된 화남면 다목적회관(목욕탕, 헬스장 등)과 더불어 시너지 효과가 기대돼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공모를 위해 화남면은 앞서 주민 주도 협의체인 화남면 주민위원회를 구성하여 올해 초부터 주민설명회와 현장포럼 5회, 선진지 견학 등으로 주민 역량을 강화시켜 이 사업을 돕고 있다.

이번 사업이 구체화되면 화남면은 활력센터(990㎡) 구역 내 게이트볼장(500㎡)도 신설할 방침이다.

한편 영천시는 2010년부터 2021년까지 농촌 종합정비 및 경관개선과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등 8개 권역 28개 사업지구에 사업비 1,256억원을 투입해 주민소득향상과 기초생활수준을 높이기위한 주민주도형 농·산·어촌 개발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이번 화남면의 38억원 공모 사업이 더해지면서 영천시는 2021년 30억원의 임고면 양항리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과 함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활력 공모 사업은 모두 8개 권역 30개 사업지구에 총 사업비는 1,324억원으로 늘어난다.

김효정 기자



이춘우·윤승오, 道기획경제·교육위원장 선출



이춘우

윤승오

영천시 이춘우·윤승오 경북도의원이 나란히 제12대 경북도의회 전반기 기획경제위원장과 교육위원장에 각각 선출됐다.

경북도의회(의장 배한철, 경산)는 지난 8일 제332회 임시회에서 제12대 전반기 7개 상임위원장(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구성하고 지역 이춘우 의원을 기획경제위원장에 그리고 윤승오 의원을 교육위원장에 각각 배출했다.

이춘우 위원장은 "기획경제위원회는 道전체 경제를 관할하는 역할을 한다. 전반기 2년 임기동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서민경제와 소상공인들을 위해 풍부한 지역 먹거리 창출에 힘쓰고, 특히 영천을 위해서는 청년창업과 지역상인 등 일자리를 위한 영천시 시책에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며 당선 소감을 전했다.

장지수 기자

윤승오 의원도 "저에게 부담가는 중책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그러나 "지방도시 과밀 학급이 있는 반면 폐교 직전의 학교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교육 현실에서 인구 소멸 도시가 되지 않도록 아이들이 행복하고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의회는 앞서 지난 4일 332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배한철(경산) 의원을 만장일치로 의장으로 선출하고 부의장에는 박영서(문경), 박용선(포항)을 각각 선출했다. 이어 도의회는 8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전체 재적의원 61명을 대상으로 7개 상임위원 및 위원장을 선출하고 제12대 전반기 위원구성이 마무리 됐다.

이날 경북도의회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에는 의회운영위원장 이철구(포항), 기획경제위원장 이춘우(영천), 행정보건복지위원장 최태립(의성), 문화환경위원장 김대일(안동), 농수산위원장 남영숙(상주), 건설소방위원장 박승직(경주), 교육위원장 윤승오(영천)의원이 각각 영광을 차지했다.

청도군, 3연속 대한민국 환경대상 수상

재활용품경진대회 공로 인정

청도군(군수 김하수)이 새마을환경살리기 '재활용품경진대회'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환경대상 자원순환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군은 지난 6일 서울 중소기업 DMCE타워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17회 2022 대한민국 환경대상 시상식'에서 이같은 대상을 받았다

대한민국 환경대상은 환경분야 주거, 정책, 생태, 자원순환, 농수산식품, 공공, 특별부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환경적 노력을 펼친 단체 및 개인에게 대한민국환경대상위원회가 수여하는 대한민국 환경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청도군은 지난 2000년부터 22년 동안 지속 추진한 '재활용품경진대회'의 공로를 인정받았으며 올해로



3년 연속 수상이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앞으로도 지속적 추진·발전을 통해 환경을 살리는 일에 민관이 유기적으로 앞장설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야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장기 표류 vs 순탄... 8월말이 분수령

..... 그러나 조합관계자, "사실상, 이 사업은 여기까지다"

13일 동부동행정복지센터 3층 이명식 통장 등 주민요청 공청회 영천시, 조합측과 새 시행사(예정) 협의 중... 8월말까지 기다려야

야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 멈춰서자 동부동 지역 주민들이 나섰다. 동부동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 계획이 이 사업과 연계되면서 또다시 중단위기에 몰렸기 때문이다.

13일 이창태 동부동 통장협의회장 및 이명식 9통장 등 주민 50여명은 이날 영천시를 상대로 동사무소 3층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야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중단과 관련한 질문들을 쏟아냈다.

이날 공청회에는 영천시도시계획과장 최인호, 담당 신성근, 회계과장 이민철 등 4명이 참석하고 김명규 동부동장을 비롯해 하기태 영천시의회 의장 및 이영기·김용문 의원 등이 참관했다.

야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해 지난 6월 초 시행사 D건설 실질적 대표인 K씨가 사망하면서 중단 위기에 몰렸다(본지 6월16일자 341호 보도)가 이제는 완전히 멈춰섰다. 지난 7월 1일부터 현장에는 「유치권 행사중」 현수막이 걸리고 건설 장비도 멈춰섰다. D건설 법정 대표(박 모 씨)가 경찰에 고소되면서 법정화 길로 들어섰다.

영천야사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조합장 C씨)은 지난해 8월26일 특수 목적법인(SPC) D파트너(대표 J모씨)를 차주로 사업지구 체비지 약1만평을 담보로 26개 마을금고(대표 J새마을금고)로부터 280억원을 대출 승인받아 지난해 8월부터 공사를 재개했다. 하지만 현재 공사 진척률 20%정도에서 다시 멈춰섰다.

그러나 이 대출금 만기 상환일자가 8월 27일로 이 기간까지 새 시행자가 확보되지 못하면 사실상 사업 중단 장기화는 불가피해 보인다는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이 사업 경과 설명에 나선 영천시는 "야사지구 중단 사태로 현재 조합측과 새 시행 예정사(S사)간 아파트 부지를 두고 협의 중이다. 영천시에도 S사의 문의가 자주 있었고, 오는 8월말 까지 양측(조합과 S사) 협의가 잘 이뤄지면 야사지구사업은 무난할 것으로 본다"고 전언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그러나 "8월말까지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더는 기다리지 않고 동부동 사무소 이전 부지를 다시 물색하던지 아니면 현 사무소를 증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며 긍정적 답변으로 보고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막다른 질문을 쏟아냈다.

▲지역민 숙원 동사무소 이전 13년째 표류했다. 이번 야사지구사업



이 중단되면 동사무소 건립이 정말 2025년(사업기간)까지 진짜 준공될 수 있나?

▲야사지구사업 중단이 장기화하면 우선 주민불편이라도 없도록 갓길(안야사)이라도 내 달라

▲언론에 발표된 K씨 사망과 관련해 80억원 횡령이 사실인가? 시가 확인했나?

▲지역이 개발돼 기대하고있던 우리는 실망이 크다. 부지 경계로 높이 5M가량의 옹벽으로 동-서 횡단간 길이 막혔고 아랫마을은 웅덩이 마을로 변했다.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 된것 아니냐?

▲용화사는 문화재보존구역인데 야에 처음부터 사업계획에도 빠져있고 또 주변이 공사중단으로 쓰레기 등으로 어지럽다 청소라도 먼저 해야 하는것 아니냐?

▲야사지구 사업 중단이 8월 이후

장기화가 예상되면 우리는 동사무소 이전을 더 기다릴 수 없다. 이 자리에서 새 부지물색하겠다고 약속해라

▲시장님과 의 간담회에서도 적극 행정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민간사업자가 부도나면 공공사업으로 전환하는 '부도입대주택법' 사례도 있는데 이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하는것 아니냐?

▲이렇게 8월말까지 못 박지 말고 조금 더 늦더라도 제대로 정확하게 새 시행사를 찾고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등 10여명의 주민들이 앞다투어 질문들을 쏟아냈다.

야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97년 사업시행인가 후 2006년 4월 시공사(K토건)의 부도로 중지돼 법정관리로 넘어갔다. 이후 공사 중지 13년 만에 지금의 시행대행사(D건설)가 들어서면서 사업 활기를 찾아가는 듯 했으나 갑작스럽게 실질

적 대표인 시행사 남편 K씨의 사망으로 사업인가 25년만에 또 다시 중단됐다.

반면 2009년부터 논의돼 오던 동부동사무소 이전 계획도 야사지구 사업부지에 포함되면서 이 사업 중단으로 13년만에 또다시 표류 위기에 섰다.

결국 이날 공청회에서도 영천시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시관계자는 "오는 8월말까지 조합측과 새 시행 예정자측과 협의가 이뤄지기만을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영천시는 만약을 대비해 동부동 사무소 새 이전자리(우로지 인근)과 자체 현 사무실 증축 계획을 연구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조합과 새 시행 예정자(S사)간 협의가 끝나는 오는 8월말이 이 사업 여부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조합 관계자는 분지와 의 대화에서 "영천시가 몰라도 너무 모른다. 사망한 K씨가 서울 B모씨에게 빌린 130억원을 갚지 못해 사건이 지역 경찰서로 이첩돼 온 것으로

안다. 이 사건에 결국 지금의 시행대행사(D건설)가 연결될 수 밖에 없고, 새 시행사가 되려는 S이엔지 역시 조합과 사전에 논의된 바도 없어 조합의 총회도 거쳐야 하는 부분이 어떻게 8월말까지 협의가 되는지 의문이다"며 사실상 이 사업은 "여기까지다"며 부정적 의견을 전했다. 장지수 기자

PC기반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모바일 추가 도입

무상수거 대형 폐기전은 콜센터(1599-0903)로

알려주세요!



영천시는 비대면 문화 확산과 스마트폰 대중화에 따른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4일부터 대형폐기물 모바일 배출신고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종전 PC기반의 배출전용 시스템의 불편함을 개선해 모바일(스마트폰)으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추가 도입한 것이다.

모바일 배출신고는 스마트폰을 이

용해 인터넷 검색창에 '영천시 대형폐기물'을 검색하면 모바일 배출 신고 사이트(<http://yc.storyweb.co.kr/>)에 쉽게 접속할 수 있으며, 수수료 결제 후 부여된 납부필증 번호를 종이에 적어 대형폐기물에 부착하여 배출하면 된다.

용해 인터넷 검색창에 '영천시 대형폐기물'을 검색하면 모바일 배출 신고 사이트(<http://yc.storyweb.co.kr/>)에 쉽게 접속할 수 있으며, 수수료 결제 후 부여된 납부필증 번호를 종이에 적어 대형폐기물에 부착하여 배출하면 된다.

co.kr/)에 쉽게 접속할 수 있으며, 수수료 결제 후 부여된 납부필증 번호를 종이에 적어 대형폐기물에 부착하여 배출하면 된다.

대형 폐기전의 경우는 무상수거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며, 콜센터(1599-0903)나 인터넷(www.15990903.or.kr)으로 예약 접수한 후 지정일에 배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모바일 배출신고 서비스 도입으로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한 시민들의 폐기물 배출 신고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효정 기자

장마철, 7월 빗길 안전사고 예방법 4가지

본격적인 장마에 접어들면서 빗길 교통사고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5년간(2017~2021년) 7월에 교통사고가 빗길로 인해 자주 발생해 빗길 교통사고는 총 6만 9062건으로 연평균 1만 38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고 월별로는 여름철(6~8월)에 37.9%(2만 6194건), 그 중 7월은 14.7%(1만 156건)으로 가장 많이 일어났다.

△적정 공기압 유지한다. 타이어 공기압을 평시보다 10~15% 정도 높여주면 수막 현상 발생률이 줄어 듭니다.

1. 감속운전 및 안전거리 유지하기
빗길, 타이어에 수막(水膜)이 생겨 조작성이 어려운 상태가 될 수 있다.

△타이어 마모도 체크한다. 타이어가 마모될수록 수막 현상 발생률이 높기 때문이다. 이때 백원짜리 동전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동전을 꽂을 때 이순신 장군의 모자가 보인다면 타이어가 마모된 것으로 교체해야 한다.

비오는 날, 제동거리가 2배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평상시 규정속도 대비 20%이상 감속, 폭우가 내릴 때는 50%이상 감속하여 안전거리 유지가 필요하다.

△배터리 주기적 체크하기
전조등, 와이퍼 작동이 증가하면 배터리가 빨리 닳을 수 있다. 보닛을 열어 배터리 우측에 있는 점검 표시창을 확인하여 미리 정비하도록 한다.

2. 낮에도 전조등, 안개등 작동하기
비가 오면 시야 확보가 어려워 자신의 차가 보행자나 타운전자에게 보이지 않을 수 있으니 어둡한 밤 또는 비 오는 날은 출발 전 전조등과 안개등을 켜 자기 차량의 존재를 알려주도록 한다.

△배터리 방전 예방법
기온이 높을 때는 장시간 외부주차 피하고 정차후 에어컨, 라이트 등 전기 장치를 끄고 시동 끈다.

3. 미리미리 내차의 상황 알리기
빗길에서는 상대방의 움직임 예측이 어렵고 상황 대처 시간 역시 길다. 차로 변경, 진행 방향 변경시 평소보다 일찍 방향지시등을 켜서 내 움직임을 상대방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이 좋다.

또, 미리 배터리 배선을 확인하고 일주일에 한번은 주행하도록 한다.

4. 각종 차량 장치 점검하기

5일 오후 3시 40분쯤 경북 철곡군 지천면에서 빗길에 미끄러진 승용차가 도로 갓길에 주차된 15t 화물차를 들이받아 40대 남성이 숨졌다. /경북소방본부

경북도, 폭염 '경계' 발령... '폭염대책 전담팀' 운영

인명·재산피해 최소화 총력

경상북도는 지난달 30일 낮 12시를 기해 폭염 '경계' 단계로 상향하고, 오는 9월 30일까지 10개 관련부서 및 시군으로 구성된 폭염대책 전담팀을 운영해 폭염에 따른 재산·인명피해 최소화 폭염대응체제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최근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평년('91~'20) 폭염일수(33℃)는 11일로 과거 평년('81~'10년) 보다 9.5일 증가 추세다. 10년간('12~'21년)은 14.6일로 증가하고 있어, 올 여름

폭염일수와 강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경북도는 '폭염 3대 취약분야'를 설정해 집중 관리에 나선 방침이다. ▷공사장 야외근로자 ▷농·밭고령층 작업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을 집중 관리한다.

공사장 야외근로자의 폭염피해를 줄이기위해 열사병 예방 3대 이행수칙(물, 그늘, 휴식)과 응급조치 방법을 안내하고 고용부와 협업해 '폭염 취약성 판단 자가진단표'를 건설현장에 배부할 방침이다.

특히 폭염에 취약한 독거노인 및

장애인, 논밭에서 일하는 고령층 작업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폭염 특보 시에는 이장이 마을방송으로 행동요령을 전파하고, 공무원, 지역 자활방재단이 지속해서 예찰활동을 강화한다.

또 무더위쉼터 확대 운영, 그늘막 33개소 추가 설치, 행정복지센터 내 옥상녹화사업 조기 추진 등 무더위저감시설을 확충하고, 폭염특보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채, 얼음물, 쿨토시 등 폭염 예방용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장지수 기자

동정

“국가 위기극복 모두 함께”



이만희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다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져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국가 경제위기 극복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우리 모두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의원은 앞서 ‘글로벌 경제위기와 우리의 대응방향’, ‘남북한 청년공존’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잇따라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민주당은 하루빨리 상임위 구성을 합의처리하겠다는 약속을 지켜 국민께 희망을 선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년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 발표



이철우 도지사는 지난 12일 ‘청년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을 공개하고 “경상북도가 민선8기 출범에 즈음해 농업의 디지털 혁신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 지사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총 4,395억 원의 투·융자 계획을 통해 대한민국의 농업의 디지털 혁신성장을 주도할 청년 농업인 5000명 육성 목표를 세우고 “경북 농업·농촌이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나아가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영천 10년 안전한 먹거리 강조



최기문 영천시장은 지난 12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영천시 푸드플랜 수립 최종보고회 개최하고 “영천시 향후 10년 안전한 먹거리 정책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이날 영천시의회 이갑균 산업건설위원장, 김선태 의원이 참석한 자리에서 “먹거리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영천시민이 안전하고 신선한 지역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돌다리도 두들겨 건너야’



하기태 의장은 13일 오전 동부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야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주민 공청회에 참석해 중단상태에 놓인 이 사업 재시행과 관련해 집행부가 더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하 의장은 집행부가 오는 8월말까지 조합측과 예비 시행사와의 아파트부지 매각 협의가 잘 이뤄지면 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다는 말에서 두루치 마시고 정확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 다며 조언했다.

이만희 국회의원, 임업인총연합회 감사패 수상

이만희 의원(영천·청도)이 한국임업인총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최무열 한국임업인총연합회장은 지난 7일 이만희 의원에게 “공익형임업직불제 도입 등 임업인의 권익향상에 헌신한데 대해 고마운 마음을 모아 감사하다”면서 이같이 전달했다.

한국임업인총연합회는 산림·임업발전을 위한 산림정책 발굴 및 임업인 권익신장

을 위해 한국산림경영인협회, 한국임업후계자협회 등 14개의 임업인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이만희 의원은 “앞으로도 영천과 청도 그리고 임업계를 비롯한 농업계의 현안 해결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장지수 기자



(주)우진농업회사법인 최진욱 대표 500만원 장학금 기탁

(주)우진농업회사법인 최진욱 대표가 지난 1일 (재)영천시장학회에 5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사)한국마늘가공협회 회장, 영천 한방·마늘산업 특구추진단 운영위원을 맡고있는 최 대표는 2015년 대전동에서 채소 도매업을 하면서도 당시 5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하는 등 지금까지 누계 기탁금 2,500만원을 기록하고 있다.

또 최 대표는 올해 초 구미 초록농산(대표

박승찬)과 대구 그린농산물(대표 최정욱)을 소개해 각각 300만원씩의 장학금을 영천시장학회에 기탁하도록해 지역 인재육성에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있다.

(주)우진농업회사법인은 지역내 마늘가공산업으로 연 매출 100억원 이상의 강소기업으로 최 대표는 “앞으로도 꾸준한 나눔을 통해 지역 인재 양성과 영천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호정 기자



이웃과 함께하는 자양면 정성우 이장... 행복금고 성금 100만원 기탁

함께모아 행복 이웃사랑 실천 앞장

정성우 자양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자양면 ‘함께모아 행복금고’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고 자양면이 1일 밝혔다.

현재 마을 이장을 겸한 자양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성우 민간위원장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이웃들에게 보탬

이 되는 일들을 적극 찾아 지역사회에 따뜻한함을 전하겠다”고 전했다.

정 위원장은 평소에도 취약계층을 위한 떡국 떡 전달, 밀반찬 지원, 행복한 밥상 사업 등으로 지역특화 사업을 진행해 수익금으로 지역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고 있다.

또 정 위원장은 올 하반기에도 여름철 건강한 삶을 위한 복 댈음, 한가위 취약계층 위문, 경로당 방문 등의 이웃사랑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김호정 기자



오기봉·백동아 영천소방서 의용소방대 제17대 연합회장 취임

“믿음직한 파수꾼으로 더욱더 안전한 영천을 만드는데 최선을”

지난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된 신임 오기봉·백동아 영천소방서 의용소방대 제17대(남·여)연합회장 취임식이 김용태 영천소방서장을 비롯해 최기문 영천시장과 하기태 영천시의회 의장, 방성대 3사관학교장, 지역 시도의원 및 의용소방대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1일 영천소방서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서 이춘우, 윤승오 도의원에게는 고문으로 위촉하는 위촉패가 전수되고, 고귀한 전 사무국장에게는 의용소방대원으로 서 지역 파수꾼 역할에 기여한 공으로 감사패가 전달됐다. 오기봉, 백동아 남녀연합회장은 나란히 영천시장학회에 각각 100만원씩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김용태 영천소방서장은 전임 연합회장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취임한 남녀연합회장의 축하와 더불어 조직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오기봉, 백동아 남녀연합회장은 취임사에서 지역 안전을 지키는 믿음직한 파수꾼의 역할과 대민지원, 자원봉사 등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 정신으로 더욱더 안전한 영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천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는 각 읍면동 18개대 대장으로 구성된 단체이며 480여명의 대원들이 화재예방 및 시민 안전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장지수 기자

본사 방문

7월 11일



하기태
영천시의회 의장



우애자
영천시의회 운영위원장



이갑균
영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김상호
영천시의회 총무위원장



박주학
영천시의회 운영위원장 [제9대 영천시의회 의장단 취임 인사]

7월 13일



최기문 영천시장
[재선 당선 민선 8기 취임 인사]



김섭 변호사의 法鏡



대표 변호사 김섭
성광합동법률사무소

늙으신 부모님 부양문제로
형제들 간 실랑이 해결방법은?

문 저의 부모님은 현재 각각 87세, 85세이며, 그 자식으로 큰형 甲과 저 乙, 그리고 출가한 여동생 丙이 있다. 부모님께서 저희들을 모두 분가시킨 후 두 분이 서만 사시고 계시는데, 최근 부양문제로 형제들 간에 실랑이가 발생했다. 어떤 해결방법이 좋을까?

답 직계혈족 및 배우자간, 기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간에는 상호 부양의무가 있다(민법 제974조). 또한 부양의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에 협의하기 나름이고, 이러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정하게 된다(민법 제976조).

이 경우에 법원은 어느 1인 또는 수인의 부양의무자

를 선정할 수 있다. 그리고 부양의 정도나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과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해 정하게 된다. 즉, 부양의무자가 부양권리자와 동거하면서 부양하느냐, 아니면 부양료만 지급하느냐의 부양의 방법에 관한 것이라든가, 부양료의 액수 등에 관한 것은 당사자 간의 협의가 가장 우선하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법원을 통하여 결정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귀하의 사안을 살펴보면, 귀하의 부모에 대하여는 귀하 乙과 귀하의 큰형 甲, 그리고 출가한 여동생 丙은 모두 부양의무자가 되고, 그 순위와 방법에 대하여는 우선 당사자인 귀하의 부모와 자식들 모두의 협의에 따르되, 이러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결정된다. 물론 수인을 부양의무자로 선정할 경우에 그 사이의 부양료의 부담문제는 각자의 재력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위와 같은 법원 판결 후 자식들간의 재력이나 건강 등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위 판결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민법 제978조).

☞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 질의 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김섭 법률사무소
대구 수성구 범어동 348-15, 율촌빌딩 501호
전화 053)755-7500

세무



윤영민 세무사
세무회계 바로

캥거루족의 세금, 증여세
직계존속 10년 동안 5천만원 이하 공제
생활 아닌 거주를 위한 금전지원은 과세
결혼해 독립한 자녀의 금전지원 증여세 대상

졸업하고 직장 등에 취업하여 경제적으로 독립을 할 나이가 지났음에도 여전히 부모와 한 집에서 부모의 금전으로 생활을 하는 젊은 사람들을 가리켜 캥거루족이라고 한다. 또한 취업 및 자영업 하거나 결혼을 하고, 심지어는 자녀도 출산한 자녀들이 여전히 양가 부모님에게 손을 빌리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캥거루족은 세금부분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자.

우리나라 증여세 부과는 완전포괄주의 방식을 택하고 있어 모든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방법에 따라서 증여세 부과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기도 한다.

성년이 된 미혼 자녀의 경우에는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소요되는 학비 등은 부모로서 당연히 부담하여야 하는 항목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학업과정을 모두 마치고 취업 준비를 하는 기간 동안의 교통비 등을 주는 경우에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학비 또는 교통비 등

을 초과하여 고가의 승용차를 구입해 주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자녀가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서 부모와 동거하지 않고 따로 주택 등을 마련하여 독립을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기본 생활에 소요되는 금전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거주를 위한 금액이 과다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결혼한 자녀와 한 집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데 소요되는 금전 등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보지 않은 것이 타당하고, 자녀가 출산을 하는 경우 그 자녀의 생활비 외의 교육비 등을 부담하는 것은 자녀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결혼한 자녀가 독립하여 따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독립체로 보아야 하므로 부모로부터 지원받는 경제적 도움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생활비 등 지원 금액은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생활수준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금액이던 그 범위를 초과하여 경제적 이익을 주는 부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는 증여공제를 통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직계존속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를 포함하는 것으로 개인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다. 특히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은 수증자별로 계산하는 원칙의 예외로 한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고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TEL 054-334-0500
FAX 054-334-0501
E-MAIL ctayym87@naver.com

[사설]

줄줄 세는 경로당 보조금 누구 책임일까?

최근 영천시 망정동 Y경로당(L회장, A부회장) 보조금에 대한 개인착복 및 횡령 의혹<관련기사 3면>이 드러나면서 줄줄 세는 보조금 관리 이데로는 안된다는 시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더군다나 이같은 보조금 횡령(부당사용 등)에 대한 수차례 민원제기도 오호려 담당 공무원이 사건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거나 은폐하려고 해 그 이유와 책임성까지 논란의 중심에 설 전망이다. 뒷선을 의식해 민원을 무마하려 하거나 혐의자의 가족이 영천시청 전직 국장 출신이라 팔이 안으로 굽는다면 이는 시민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특히 경로당 보조금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며 “이미 지급된 돈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고 환수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공무원이 있으니 아연 실색이다. 그 공무원이 담당 과장이라면 그 밑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하위직 공무원은 더더욱 우려된다. 상관의 잘못된 방향이라도 지시대로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번 Y경로당 L회장과 A부회장의 보조금 부당사용과 착복 금액은 줄잡아 480만원에서 약 1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조금을 아들 개인 통장으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해 250만원의 소고기를 사먹으면서도 영수증도 남기지 않았다. 한개의 카드로 동일 장소와 동일 시간에 비슷한 금액으로 2~3차례 중복해 결제하는 방법으로 편법사용이 이뤄졌다. 보조금으로 물품을 구매하고 그 물품 값을 따로 회원들에게 받아 기록조차 제대로 남기지 않아도 공무원의 정산에는 걸리지 않았다.

이같은 상황에서도 담당 과장이라는 공무원이 “민원인과 당사자간 협의가 이뤄졌다. 누수금액은 다 입금되었다. 부정사용 보조금은 환수했다. 경로당 보조금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환수할 수 없다. 문제의 경로당 회장으로 재선출해 잘 해결되었다는 등 횡설수설하며 한마디로 무책임한 해명만 늘어놓는다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할까?

물론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이라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처지는 이해가 간다. 그러나 장부나 보조금 사용법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시민의 혈세를 대신 관리하는 공무원이 귀찮다거나 민 개인 착복·횡령 의혹...오호려 공무원이 두둔 원이 두려워 특히 뒷선을 영천시, 경로당 보조금 관리 특단 대책 필요 의식해 무마하려 했다면 이는 분명 직권을 남용하거나 보조금을 횡령한 당사자와 함께 증거를 은닉한 공범일 수 있다.

또 다른 읍면동 경로당도 마찬가지다. 한 면사무소 면장은 우리지역 대부분 경로당도 비슷한 처지라고 말했다. 이번 Y경로당 관할 주민센터 담당도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다. 어르신들을 아무리 가르쳐도 실행을 하지 않으니 이같은 일은 오래 전부터 지속돼 왔다”는 하소연이다.

지역에 425개의 경로당이 있다. 한 경로당에 연간 400만원에서 많게는 700~800만원의 보조금이 투입된다. 줄잡아 1년에 전체 경로당에 약 17억원에서 많게는 30~40억원 가량 지원된다는 계산이다.

이 돈이 공무원 개인의 돈이 아니다. 어른을 공경해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공경해야 한다. 경로당은 경로당 명의로 발급한 통장을 사용해야 한다. 보조금이 입금되는 ‘보조금 통장’과 기타 경로당 비용을 관리하는 ‘보조사업 통장’으로 분리해 사용해야 된다. 현금 인출도 안된다. 편법 카드 사용도 있을 수 없다.

전국 타 지자체는 쓰고 남은 보조금은 반납받는다. 특히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거의 경로당 문을 닫았는데도 Y경로당은 매월 꼬박꼬박 부식비가 지출됐다. 이번에도 동부동주민센터는 남은 돈이 없다며 수입·지출을 맞춰 잔액을 0원으로 정산받았다. 더군다나 사회적보장 수혜금이라며 반납을 받을 수 없다는 영천시 담당과장, 제발 앞뒤가 맞지 않는 유체이탈 화법으로 공무원집행을 하지 말길 바란다.

경로당 보조금은 냉·난방비, 운영비, 간식비로 용도가 명확하게 구분돼 있다. 운영비와 간식비는 1년에 4차례 분기로 나눠 ‘보조금 통장’에 입금된다. 보조금이 아닌 보조사업이나 후원금, 회원들이 낸 찬조금, 회비 등은 같은 경로당 명의 통장을 만들어 입출금해야 하며, 두 통장 모두 체크카드 사용이 의무다. 특히 냉·난방비가 남았다고 운영비로 쓰면 불법이다.

이같이 경로당 보조금이 줄줄이 세고 있어도 영천시 공무원은 오호려 혐의자를 두둔하기에 급급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 “어르신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하는 보조금을 몇몇 운영진이 편을 가르고 권력자에 아부하며 자기를 배만 채워서 문제가 불거진 것”이라고 지적하는 제보자는 “시 관내 425개 경로당을 전수조사해 이번 기회에 영천시가 투명하고 건전한 경로당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일침을 영천시 책임자는 새겨 들어야 할 것이다.

경로당 보조금 사업은 국·도·시비로 편성되는 국비 보조금 사업이다. 따라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을 공무원이 모를 리 없다. 경로당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해도 사회적보장 수혜금이라며 환수할 수 없다는 공무원은 도대체 어느나라 공무원일까?

'영천신문'의 인터넷판
'영천투데이'를 클릭하면
오늘이 보입니다
Best!
홈페이지(영천신문과 공동)
www.yctoday.net
기사제보 : yctoday1@naver.com

영천신문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장지수 | 인쇄인 ㈜중앙일보
대표전화 332-2400 | FAX 335-6600 | E-mail ycn@yctoday.net
구독료 : 월 5천원, 1년 6만원, 경상북도 영천시 호국로 17
계좌번호 : 농협 301-0093-9954-51 (㈜영천신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지난 5월 28일 확장 이전(개업)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넓은 실내
깨끗한 주방
아늑한 조경

한그릇의 만족

자연과 함께 식사 후 야간 강변 산책도 가능한 아늑한 국밥집
"최고의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영천시 고경면 단포 구보길 43-6 (054) 333-4710 한그릇의만족 대표 탁기만



주사파를 청소하자!

“미친 자(김정은)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본회퍼(Dietrich Bonhoeffer)

주한미군 철수 세력, 종북 친중 세력이 다시 꼬리를 치고 있다.

- 자유통일당 당대표 전광훈 목사, 대한불교호국총연합대표 응천스님, 천주교인 모임대표 이계성 대표 -

자유통일을 위한 1천만 국민서명운동 인터넷 서명 : <http://m.khmon.com/sign/1>



참여단체 : 5.18역사왜곡진상대책국민연합, KLO, KO-US, 경북애국시민연합, 고대교우투루스포럼, 광화문회복기도회, 구국총연합민병단, 국가재건원로회의, 국민노동조합, 국민지방운동본부, 국민주권자유시민연대, 기독교장로회, 나라사랑총연맹, 대한민국3.1회, 대한민국공산화반대, 대한민국국가선양회,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대한민국수호역명위원회, 대한민국수호호국단, 대한민국애국단체총연합, 대한민국작전회의, 대한애국동지회, 대한애국시민연합헌법수호위원회, 북한민주화위원회, 사)자유민주주의연대, 사)환태평양문화연구원, 새음악부모연합, 순복음나라사랑, 안보시민단체총연합, 엄마방송, 엄마부대, 여성정책협의회, 월드시니어 유니온, 올인모, 육군기행사관구국동지회, 은기비마하나임, 의성자유민주애국연대, 인천애국시민단체연합, 일사각오구국목회자연합, 자유대연합, 자유민주주의운동본부, 자유민주시민연대, 자유민주애국연합, 자유복합운동연합, 자유수호국민운동, 전국교회지킴이, 전국국민의병대, 전국기독교시민단체, 전국대학연합구국동지회, 전국여성구국총연합, 전국여성싱크탱크, 정책피해자모임, 주권수호국민연대, 탈북자동지회, 태극기애국시민연합, 태풍애국단, 파주애국시민연합, 한국자유수호협회, 한국참전미군실종자지역연대, 한국퇴직자연맹, 한미동맹강화운동본부, 호국불교승가회, 국민참여서명단 외 1400개 시민단체.

회비납부 : 국민 034501-04-175799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

영국화원
전문장례식장

고급수의 관
도우미 상복
장의버스
입관용품

99 만원

영락원 장례식장

관수의, 도우미, 상복
장의버스, 입관용품

99 만원

(054) 331-4444
(영천영대병원 옆)

24시간 상담가능 336-4444